

##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창세기50:1~6>



김 종 권 목사 (하라노교회)

1980년대 대한민국 대중가요에 서정적인 노랫말이 많았다는 것에 공감하는 중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당시 노래들 중에 지금도 선명히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너를 보내는 들관에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낯달이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훨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길로……”

누군가의 가슴에는 오열을 터뜨리게 했을 법한 어느 중년 여자가 수 불렀던 죽음에 대한 소고(小考) 같은 노래. 이 죽음이라는 무거운 명제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애써 외면하려 분주한 일상에 얼굴을 파묻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반면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공론화하고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신앙이 더욱 선명해지고 은혜의 동기부여가 됨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라는 대서사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의 임종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은 죽은 아버지의 얼굴에 몸을 구푸려 울며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었기에 아버지의 임종에 대한 그의 마음 또한 특별해 보입니다.

2절, 3절에서는, 애굽식 장례법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40일간 공을 들여 미이라를 만들고 70일 동안 애곡하며, 4~6절에서는, 야곱의 유언대로 부친을 가나안에 매장하도록 요셉이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상으로 치러진 야곱의 장례식은 규모와 비용, 조문객 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쓸쓸한 죽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달 14일, 한국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목사가 소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일반 언론사 뉴스로도 보도가 될 정도로 교회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조용기목사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의 송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렇듯 어떤 죽음은 많은 이들의 애도속에, 또 어떤 죽음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초라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神戸市内の六甲山에는 神戸市立 外國人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엔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 (William Benton Scranton) 선교사, L.L. Young 선교사 등 19세기의 유명한 선교사님들과 당시의 외국인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21세기의 지금 일본에는 상당수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 ルツ結婚相談所

在日韓国人・帰化人、結婚・再婚を望んでいる人へ  
年齢 23歳~70歳まで、北海道から九州まで

親身になってご成婚までねばり強くお世話を  
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

**090-3429-9707** 代表 崔貞淑

한국의 선교역사에 큰 획을 그은 조용기목사와 같은 눈길을 끄는 커다란 죽음도 있겠지만, 이름없이 빛도없이, 박수갈채 없는 시선 밖의 선교를 하다가 잊혀져 간 선교사, 목회자들이 어디 한 둘이겠는지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라는 찬송 가사처럼 구원의 기쁨만을 안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이름없이 빛도없이 일생을 살다간 성도들 또한 얼마나 많았을까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일본에서 선교를 시작한지 11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우리도 ‘이름없이 빛도없이’ 일지라도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 천국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만나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할 날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님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1: 20-21)

누구보다도 축복에 목매며 살아왔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창47:9), 그는 나그네 세월 130년 운운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넘두리합니다. 지금 내가 목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사람, 꽃을 놓아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땅을 사는 동안에는 복음과 함께 살아서 좋고, 죽어 천국가면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서 좋다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허무한 죽음을 노래한 1980년대 어느 가수의 노랫말을 따라 불렀던 소년의 노래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찬양으로 노랫말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이에 순종한 요셉의 효심을 지켜보면서, 오늘 나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천국임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권세를 훼파하시므로 주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통로가 ‘죽음’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的新讃頌歌版です。交説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 제3회 상임위원회 개최 제56회 정기총회 현의안 등 심의

제55회 총회기 제3회 상임위원회가 9월23일에 Zoom회의로 개최되어 상임위원 21명 중에 19명, 특별위원장 2명이 참가하여 각 종 보고 및 정기총회에 상정할 현의안 등을 심의하였다.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현의안은 다음과 같다.

- (1) 관서지방회 '大阪平康教会 해산' 요청의 건.
- (2) 서부지방회 '지방회 규칙 변경'의 건.
- (3) 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회 '제9회 조국의 평화 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도쿄회의'의 명칭을 '한국/조선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도하는 한국·조선·일본 기독자 회의'로 변경 요청의 건.
- (4) 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계속 설치 요청의 건.
- (5) 교역자 퇴직후 지원금 규칙과 구제기금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는 건.
- (6) 총회 규칙 변경의 건.
- (7) 在日총회신학교의 西新井교회에 대한 미지불금(수리비 등) 변제 협력 요청의 건.
- (8) 신학교시위원회 세칙 개정의 건.
- (9) 각 기관 이사 및 감사 승인의 건
- (10) 2022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그 외에 승인된 안건

- ①제56회 정기총회를 11월23일, 하루만 개최되는 관계로 추천 받은 각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앞당겨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을 승인
- ②새로운 총간사 선임을 현 총간사 김병호목사를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선거하기로 하였으며, 김병호목사가 선출되었을 경우에 총회 규칙에 의해 그 임기는 2년인 것을 확인.
- ③목사의 <재직증명서> 발행을 소속 지방회 경유하여 총회 사무국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홈페이지의 소정 신청용지)
- ④총회 수첩의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해 각교회 장로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관한 것은 각교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 고경미장로 장립 거행 권사 취임식과 명예 추대식도 동시에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大阪教会에서는 지난 9월12일 주일 오후에 고경미장로 장립식, 강은혜권사 취임식 및 명예권사, 명예집사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정연원목사의 사회로 개최한 예배에는 김무사목사가 '장로들에 대한 권면' (벧전 5: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관서지방회장 허백기목사의 사식으로 고경미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어 소개, 서약, 안수기도, 선포로 이어졌다.

이어서 강은혜권사 취임식, 김영숙명예권사 추대식, 전영옥, 조명연, 박경희, 양관수, 안옥자, 문인권 양옥윤 명예집사 추대식은 당회장 정연원목사의 사식으로 거행되었다.

금번, 大阪教会 장립을 받은 고경미장로는 1958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04년부터 집사, 2014년부터 권사로 교회를 섬겨왔다, 현재 관서지방회 여성회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 온라인으로 연수회 개최 목사 임기제 등에 관하여 강의

2021년 7월 23일 13시 ~ 15시 전국 장로회 연수회를 온라인 (ZOOM)으로 가졌다. <교역자 임기제를 생각~건강한 하나님의 밭을 만들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교토남부교회 허백기목사가 강연을 하고 이어서 <왜 임기제인가? 그것은 가능한가?>에 대하여 허백기목사와 토요나카제일부홍교회 박영자목사의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참가자는 총43명 (목사 5명 장로 30명 여성 회 8명). 질의 응답이 있었고, 향후 전국 장로회, 여성회에서도 계속 과제로 삼아 준비를 하기로 했다.

(보고 : 서기 森克之)



## 조원철목사 위임식 거행 2019년 11월에 미사와교회 부임



지난 2021년 9월 20일, 관동지방회 미사와(三沢)교회의 조원철목사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이명신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지방회 부회장 신대영장로의 기도, 지방회 부회장 김용소목사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행 2:42~47)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지방회장 이명충목사의 사식으로 엄숙하게 시작된 목사 위임식은, 서약과 기도 및 선포로 이어졌으며, 지방회 부서기 이재익목사의 권면과 김병호총간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위임받은 조원철목사는 1977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목원대학교 관현악과, 장로회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14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17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로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동안 어학연수와 목회 인턴과정을 관서지방회의 히라노교회에서 가진 후, 2019년 11월에 미사와교회에 부임하였다.

가족은 부인과 2녀가 있다.

## 9월호 정정과 사과

2021년 9월호 2면의 배정애목사 위임식 내용중에 이름이 틀렸습니다. 사과와 함께 정정하겠습니다. <배정애목사>가 아니고 <배정애목사>이며, <관저지방회장>가 아니라 <관서지방회장>입니다.

# 「모리모리 푸드판토리」

## 한부모·이주외국인가정식량지원 내년5월까지 1년간 계속하기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갑작스런 해고, 고용 중지 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 특히 타격을 입는 것은 이주외국인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전국교회여성 연합회는 식사도 충분히 취할 수 없는 아이들과 외국에 뿌리가 있는 가정을 위한 식량 지원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종료되고 향후 검토를 하는 중, 코로나 사태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 5월까지 1년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활동 I. 식량지원

매월 마지막 토요일 13시~15시 전국여성회 사무실에서 무료배포

배포물 : 쌀, 인스턴트, 레토르트 식품, 파스타, 통조림 등

배포수 : 2020년 10월 6가정 11월 18가정 12월 13가정

2021년 1월 11가정 2월 12가정 3월 27가정 4월 30가정

5월 44가정

6월 33가정 7월 42가정 8월 43가정

### \*활동 II. 생리의빈곤

경제적 궁핍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생리 용품을 구입할 수 없는 여성이 5명 중 1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리 용품을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은 배움의 장소나 일을 잊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회의 상실”이 됩니다. 2021년 4월부터 “모리모리 푸드판토리”와 같은 날에 생리 용품 구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절반 이상의 분들이 받으십니다. 생리 용품에



까지 돈을 쓸 수가 없다는 소리도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활동 III. 5지방에 대한지원

초·중학교 방학(봄 여름 겨울 방학)은 급식이 없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지방에 있는 아동·외국인 지원시설에 장기 휴가시기에 맞춰 쌀을 지원합니다. 시범 기간을 거쳐 방학마다 지원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

시범 기간 : 봄 방학 쌀 2kg 25개

関東·横浜市 在日外国人教育生活相談센터信愛塾 中部·豊田市 토루시다

関西·大阪市 CPAO 西部·明石市 多文化센터 망마루아카시 西南·岩国市 토리데

연간 지원: 여름 방학 쌀 2kg 40개

関東·足立区 OHANA판토리 中部·豊橋市 토루시다 関西·京都市 happiness

西部·広島市 広島어린이食堂支援센터 西南·岩国市 토리데

시험 기간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지원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번인 지원이지만, 이 활동을 통해 만나는 분들의 마음과 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石橋真理惠총무)

## 신학생·선교사 연수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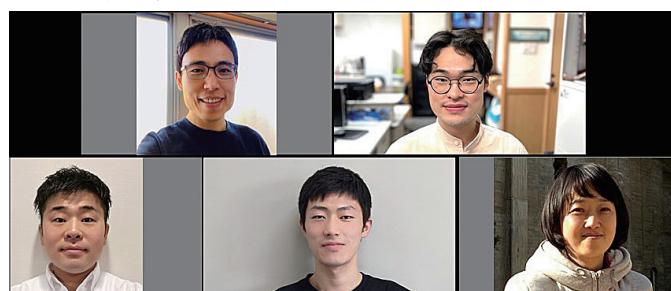
### Zoom연수회로서 5명이 참가

2021년도 총회신학생 및 총회 가입하는 선교사 연수회가 지난 8월29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9월4일(토)까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Zoom연수회로 가졌다.

교육과목으로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신학과 선교 이념, 역사, 헌법과 규칙, 재일동포 역사 및 재일대한기독교회 역사, 일본기독교회의 신학과 교회사, 이단종교, 에큐메니칼 신학,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의 목회 전반, 예식, 예전 등의 강의가 있었다.

금번 연수회에 참가한 연수생은 다음과 같다.

김청곤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조은주(品川교회 신학생), 고대한(京都교회 신학생), 한선영(大阪교회 신학생), 구본서(京都교회 신학생)



## 福音新聞 11月号休刊のお知らせ

福音新聞2021年11月第811号は都合により休刊いたします。

## 仙台教会牧師請聘

資 格 : 在日大韓基督教会所属牧師

年 齡 : 60歳まで (1961年生まで)

連絡처 : 仙台教会請聘委員会

(sendaich21@gmail.com)

臨時堂会長 張慶泰牧師

# 제19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코로나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9월6일, “韓・日・在日教会 <이주민> 국제 심포지엄”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평화 위원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 삼자의 공동개최로 가져 기조보고, 한일 양측의 발제이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앞으로의 공동과제를 확인하였다.

## <제19회 日・韓・在日교회 <이주민> 국제 심포지엄 공동성명>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출애굽기23: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는 日・韓・在日教会가 처한 현주 소를 공유하고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6일, 「역사를 직시하는 이주민 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COVID-19위기하의 日・韓・在日教会의 선교과제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제 19회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지 1년 반이 경과했다. COVID-19를 계기로 사회 속의 다양한 부작용이 한·일 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이주민들이 사회보장에서 벗어나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COVID-19의 팬데믹 영향으로 생활이 곤궁한 가운데서도 이주노동자는 자유를 제한받을 뿐 아니라 생활보장을 받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관한 법제도에 있어서, 과거 수십 년에 걸쳐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에까지 이르는 이런 일본의 차별적인 외국인정책과 법제도는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 를 반성하지 않고 식민주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분단의 역사를 직시하는 이주민 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65 역사 속에서 국가주의적이고 단일민족지향적인 가치관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인종주의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열악한 취업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들은 COVID-19의 만연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2020년 시민운동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 재해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 국적 주민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 냈으며, 결국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에 근거하여 외국인에 대한 재해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또 일본에서는 2020년 생활지원을 전

혀 받지 못하는 난민 신청자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긴급모금이 시민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2021년에는 많은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의 개악안이 법안폐기 되었다. 각각의 사회 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극복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급속하게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도, 일본도 실질적인 ‘이민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사명을 한·일·재일교회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지금까지의 역사와 어떻게 마주해 왔는지를 공유하고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생각하며 협동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필요함을 제19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들은 확인했다.

우리들의 화평이시며, 중간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에베소서 2:14)를 따르는 무리인 한일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과제를 선언한다.

1. 日・韓・在日教会는 함께 화해와 평화의 실현을 요구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공생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2. 우리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일본의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 제정의 조기 실현을 위해 힘쓴다.
3. 우리는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4. 우리는 한·일·재일교회가 만나 역사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배움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장이 복음선교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아시아와 세계 여러 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6. 우리는 이상의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재일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갈 것을 확인하고, 제20회 국제심포지엄을 2022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 讃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誦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豊かな味、豊かな心。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